



3면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특위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역주도형으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음 9월 18일) 제264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한빛 3호기 재가동 계획 철회를”

도의회 한빛특위, 전수 조사·전면 재검토 촉구
“안전성 담보못해 불안 가중... 해법 마련을” 목청

전북도의회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 원전 3~4호기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달 30일 기준, 발전이 중단된 지 882일, 4호기는 1,190일이 지났다.

당시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는 공극과 철근 노출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다.

공극은 3호기 124개소, 4호기는 140개소, 철근은 3호기 184개소, 4호기 24개소에서 노출이 발견됐다.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와 4호기의 공극과 관련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공극이 발생했으며, 3호기의 안전성 평가 결과 구조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의 공극 보수계획을 승인했고,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공극 보수를 마무리하고 3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의회 한빛원전특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격납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균열 등에 대한 정밀조사는 배제한 채 평가를 마무리하고, 정비계획까지 승인해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지난해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며 “별도의 조사 없이 평가를 완료한 것은 원전 안전을 담담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빛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기대하며, 정부를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러한 졸속평가와 3호기 재가동 추진이라는 것에 대해 전북도민은 참담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는 “격납건물은 원전 안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호벽”이라며 “내부 균열로 취약해진 콘크리트가 부

서져 영구정지 한 미국의 ‘크리스탈 리버 발전소’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극이 발견된 부위에서 균열 가능성도 확인됐다”며 “정비 계획을 멈추고 균열을 포함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재가동 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한빛원전의 부실시공은 내부철관 부식과 공극 발견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지만, 한빛원전 시공에 참여했던 모든 기관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한빛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율러 “한빛원전 3~4호기의 안전성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정부는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지원해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도

요구했다.

도의회 한빛특위 성경찬 위원장은 “4호기에 사람이 만만 공극이 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의 대응은 너무 인이한 대처이고, 3~4호기에서 발생한 문제는 완전히 부실 그 자체”라며 “전북 고장에 민간환경센터서스 개소 등 전남도와 더불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찬 위원장은 “도내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의회는 전북도 방재예산을 적극 지원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 계획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대 화학공학부, 세계대학 ‘상위 10%’

1748곳 중... 경쟁력 인정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가 미국 순위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지의 최근 발표한 2021 세계대학평가(2021 Best Colleges)에서 169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세계 1,748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판도 25%와 연구실적 75% 등의 지표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 화학공학부는 세계 대학 상위 10% 이내에 진입, 최우수 학과임을 증명했다. 같은 평가에서 서울대는 세계 129위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전북대 화학공학부가 그동안 우수 연구와 산학협력, 세계적 공학교육 등에서 기본을 강조하면서 키워온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지표가 된 교수 연구 경쟁력은 전북대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169명의 교수진은 최근 2년 동안 SCI급 논문 100여 편

을 발표했다. 또한 세계 우수 대학들과 견줄 만한 최고 수준 교육을 통해 ‘공학인재’를 받고 공학교육을 잘하는 우수한 대학으로 국내외 인정을 받아 왔다.

교육부가 화학공학 분야 국내 상위 10개 이내 연구 중심 대학에 지원하는 BK21 사업을 2006년부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연구 능력에서도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NURI사업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받으며 산업계 경쟁력 강화, 기업 지원 학생 취업률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는 2일 시청 책가동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사랑상품권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전주사랑상품권 드디어 나왔다

전주시, 출시기념행사 가져
전통시장 등에 활력 기대감

전주의 자금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주형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이 출시됐다.

전주시는 2일 시청 책가동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이명호·임재원 전북은행 부행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주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사랑상품권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김승수 시장은 1호 전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전주시청 로비에 마련된 증정장 애인일자리카페인 ‘뽀앤커피’에서 첫 결제를 했다. 또 전주사랑상품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메시지도 작성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애함카드’와 ‘말뚝카드’, ‘나눔카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전주 시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애함카드’다. 시는 전주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사용처는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쓸 때마다 캐시백이 된다는 점에서 ‘말뚝카드’ 특징도 있다.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이 상품권은 매일 5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사용금액의 10%를 최대 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게다가

30%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단, 10% 적립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노송동 기부천사의 전통을 잇는 ‘나눔카드’이기도 하다. 시는 이와 관련, 공익성과 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별도의 기부천사기행점’을 모집한다. 기부천사기행점은 전주사랑상품권 매출액의 일부(1% 정도)를 자율 기부하게 되며, 기부금액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시 공공사업에 활용된다. 기부천사기행점은 간편한 전산처리를 거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천사기행점 현판도 제공받게 된다.

전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려면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충전해야 한다. 카드 신청은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할 수도 있다. 충전금액은 1만원 단위로 가능하고, 월별 자동충전도 가능하다. 또 체크카드를 삼성페이, IG페이 등에 탑재할 수 있어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체크카드 신청과 충전 등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43명의 전주사랑상품권 시민서포터즈를 전북은행 각 지점에 배치해 앱 설치를 돕고 사용법을 안내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은 따뜻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전주사랑상품권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익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전주형 지역화폐 모델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